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4월 소식

지난해 길었던 겨울과 달리 올해는 2월부터 따뜻한 기운이 이어지더니, 살구와 체리꽃들이 일찍피어 온 들판에 꽃눈을 흘날렸습니다. 키르기즈는 보존된 자연과 물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살구와 호두의 생산량과 품질도 좋은 편입니다. 봄에 꽃들이 잘 피었으니, 꽃샘추위(이곳은 4월경에 가끔 눈이 내림)를 잘 견디면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키르기즈에서의 저희의 삶과 사역을 위해 늘 사랑과 기도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곳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1. 신약 주석 번역 작업 로빈교수는 지난 3월에 3개월의 안식의 기간을 여름이었던 호주에서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수술했던 대퇴부분의 정밀 검사결과 큰 이상은 없지만, 여전히 걸을 때마다 약간의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주석 번역팀의 리더로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옥중서신 두 개의 책에 대한 마지막 편집과 디자인이 거둬지고 있어서 아직 인쇄단계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인쇄되면 십 여년을 가는 문서 사역이라서, 번역과 감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번역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역팀 가운데 현지인 사역자 부부가 이곳 수도에서 자동차로 약 40분정도 떨어진 곳에 살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고 있는 같은 지역의 다른 공동체에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나서 공동체 모임장소가 전소되었습니다. 아주 드문 사건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주변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함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어 교실(드림 아카데미) 저희는 한국사역자 다섯명과 현지 선생님 한분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교실(드림 아카데미)이 있습니다. 고려인 회관의 건물에 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6개 반을 모집해서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수준별 방과후 한국어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시간이 맞는 학생들이 고급반으로 배우러 오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여러명이 있습니다. 이곳 키르기즈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우호적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사들만 충실히 준비되어 있으면, 모집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부분 1년과정(9월에서 5월까지)의 초급반을 거치면 2년차에는 현지어(러시아어/키르기즈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어느정도의 한국어 강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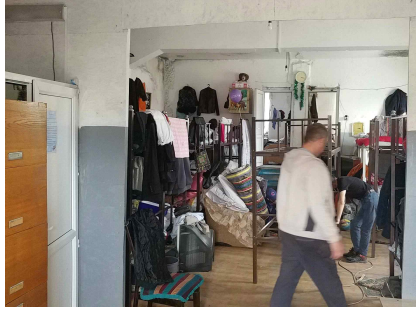


알아듣게 됩니다. 지난 주에는 그동안 배운 한국어 중에서 시, 노래, 자기소개, 이야기 등을 준비해서 발표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한국어 캠프를 계획하고 있는데, 교사들 가운데 한분은 유방암을 진단받아 한국으로 나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사중 한분인데 남편도 아내를 위해 함께 나가 있는데,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사들을 응원하여

여름캠프도 하고, 9월 새학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 한국어 교사들이 연결되어 함께 좋은 팀을 이루어 이 사역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 '소망의 집'은 현지 사역자 알렉산더가 용접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침대를

제작하여 두 번째 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에 남, 녀가 함께 지내었는데, 이제 두 개의 공간에 분리하여 남자와 여자들이 기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간은 아직 창고형태인데 기거할 수 있는 침대가 없지만, 바닥에 매트를 깔고, 아직 알콜중독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세 번째 공간에서 이곳 소망의 집에 대한 규칙을 잘 지키며, 술을 끊도록 도와서 첫 번째, 두 번째 공간으로 들어와 기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약 40명정도인데, 이곳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명 있지만, 이곳 규칙을 정해 충분히 동의한 사람들만 들어와 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루에 한번씩 국과 빵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곳 사람들 가운데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빈병이나 박스등을 수집하여 먹을 것을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음식을 만들어서, 기거할 곳이 없는

노숙인들을 위해 먹을 것을 공급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누는 삶의 보람을 통해 작은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기대 이상으로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된다면, 보건실과 직업 훈련실 공간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현지 사역자 알렉산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지 공동체

저희가 출석하는 공동체는 러시아어와 키르기즈어를 함께 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예전에는 종교허가를 받고 목회와 신학교 사역에 참여했었지만, 지금은 종교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는

현지인에게 모든 리더십을 넘겨주고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 공동체 뿐 아니라 이곳 키르기즈의 대부분의 공동체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대부분 공동체들이 한가지 언어로 공동체가 운영되지만, 저희는 거의 초기(2002년)부터 러시아어로 진행하면 키르기즈어로, 키르기즈어로 진행하면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두 가지 언어의



찬양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가정들이 구성원인데, 대부분 제가 초기에 이곳에 왔을 때 학생이나 청년들이었던 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진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중학생이었던 꼬맹이가 이제는 이곳 공동체의 담임자가 되어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매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로 흩어지기 전에 아이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분 앞에선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고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곳의 귀한 사역자들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헤브론, 김엘레나 드림